여름피서 '추억이 있는' 남원으로 오세요

지리산 정령치 바람소리·계곡 물소리에 마음속까지 시원
광한루·춘향테마파크에선 판소리·가마타기 등 실속 체험
먹거리·볼거리 풍성…남원공설시장 '월매야시장' 필수코스

"여름 피서 남원으로 오세요."

최근 30도에 육박하는 기온을 보이며 여름이 일찍 찾아왔다.

벌써부터 걱정이다.

하지만 짜증 부리지 말고 시원한 바람과 맛있는 음식이 있는 피서를 생각하며 이겨내야 한다.

피서지를 고민하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남원을 선택하라.

지리산 계곡의 물줄기는 몸을 시원하게 해주고, 광한루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문화 행사는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것이다.

◇ 구불구불 고갯길 정령치 시원한 바람

차로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고개 중 하나인 정령치는 해발 1172m의 고개로 아무리 더운 여름이라도 고개를 오르고 보면 서늘한 바람이 이마에 흐르는 땀을 식혀준다.

예전에는 쉽게 접근할 수 없었지만, 올봄부터 남원시에서 정령치 순환버스를 개통하면서 대중교통을 통해서도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정령치 순환버스는 남원역과 고속버스·시외버스 터미널을 거쳐 고기리, 정령치 휴게소, 반선, 산내면 소재지, 인월면 소재지, 운봉읍 소재지를 거쳐 남원역으로 돌아오는 노선으로 운행되며, 요금은 1인당 1000원이다.

정령치 길에서 빼 놓을 수 없는 것은 남원8경 중 제 1경인 구룡폭포와 구룡 계곡일 것이다. 아홉마리 용이 노닐다 승천했다는 전설이 사실처럼 느껴질 만큼 구불구불 아슬아슬하게 연결되며 절경을 연출하는 구룡계곡은 여름의 더위를 씻기에 가장 알맞은 장소다.

밤이되면 볼 수 있는 정령치의 여름 밤하늘은 영화에서나 볼법한 멋진 장면을 보여준다. 불빛하나 없는 밤하늘이 보여주는 멋진 별빛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한다.

정령치를 넘어 도착하는 뱀사골 계곡은 여름 지리산 하면 응당 떠오르는 피서지이다. 캠핑장도 준비돼 있으니, 연인이나 가족 단위 여행객이라면 이 곳에서 1박을 보내는 것도 못 잊을 여름의 추억이 될 것이다.

◇ 600년을 맞이한 광한루의 다채로운 행사

1419년 조선시대 명재상 황희가 남원에 있을 때 만든 광한루는 2019년 올해로 600년을 맞이했다. 600년을 맞아 올 해를 광한루 방문의 해로 정한 남원에서는 다양한 행사도 준비하고 있다.

광한루를 연결하는 오작교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견우, 직녀가 만난다는 칠석(七夕·양력 8월 7일)이 포함된 주를 광한루 기념주간으로 정하고 기념식을 포함한 행사가 열린다.

8월 2일에는 시민과 남원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광한루 600년 기념식과 축하공연이 열려 모두와 함께 600년이 된 광한루를 축하할 예정이다.

전통놀이를 비롯한 탁본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낮 시간동안 운영될 계획이다.

특히 멋진 야경을 자랑하는 광한루원에서 시립국악단이 참여한 가운데,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밤 8시에는 야간 공연도 펼쳐지고, 광한루원 곳곳에서는 국악 버스킹(거리공연)도 열린다.

또 10월까지는 이렇듯 멋진 야간 공연을 무료 관람이 가능하게 하고자 오후 7시에서 오후 9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이와 함께 광한루에서 조금 떨어진 남원 공설시장에서는 매주 금요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월매 야시장'을 운영할 예정이니 필수 관람코스에 넣어두도록 하자.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여름 남원에 오면 지리산의 시원한 계곡과 둘레길에서 트래킹을 하고, 광한루원과 춘향테마파크에서는 판소리 배우기, 가마타기, 국궁 활쏘기 등 체험프로그램을 즐기며 뜻깊은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남원 광한루 야경.

지리산 정령치 전경.

화순군 '목공예 체험 교실' 호응

'DIY 가구 만들기' 등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화순군이 운영하고 있는 '목공예 체험 교실'이 호응을 얻고 있다.

화순군에 따르면 군은 모후산 자락에 자리한 목공예 체험장에서 참가자의 수준에 맞춘 목공예 체험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

체험 프로그램은 전문 강사가 진행하는 'DIY 가구 만들기'와 체험장 작가가 진행하는 '생활가구 만들기' 2개 반이다.

'DIY 가구 만들기'는 11월까지 총 62회 열려 1500명이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 편의를 위해 평일과 주말반으로 운영한다.

참가자들은 침대 등 실생활에 필요한 16가지 품목 중 참여자가 희망하는 한 품목을 만드는 체험을 하게 된다.

체험을 위해서 드는 재료비 일부는 참여자가 부담한다. 실생활에 필요한 가구를 만들고 만드는 과정을 통해 정신 수양에도 도움이 돼 참여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체험장 작가가 운영하는 '생활가구 만들기'는 어린이와 목공예 입문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편백 도마, 느티나무 빵도마, 목침, 12간지 만들기와 소품제작 체험 프로그램 등이 있다.

오는 8월에는 여름 특강반을 총 8회(수요일·금요일) 운영할 예정이다.

'편백 도마 만들기'와 '나무와 친해지는 목공예 체험'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산림산업과 산림 휴양팀(061-379-3732)으로 문의하면 된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

농작물 병해충 방제·생육 증진 우수
순창군농기센터, 기능성 미생물 발굴 주목

순창군 농업기술센터가 최근 농작물 병해충 방제와 작물 생육 증진에 우수한 기능성 미생물을 발굴해 주목을 끌고 있다.

이번에 발굴한 미생물은 항균 활성을 가지는 바실루스 벨레젠시스, 바실루스 아밀로리퀴파시엔스다.

여기에 땅심(지력) 증진 및 난분해성 유기물의 가용화가 뛰어난 효모균인 카자흐 스카니아 세르 발찌, 데바 리오 미시즈 한세니 및 유산균인 엔테로코커스 패시움 등 총 5개를 확보했다.

바실루스 벨레젠시스 및 아밀로리퀴파시엔스 균주는 항균 활성화 실험 결과 고추 탄저병의 균사생장 30%, 시들음병을 31%가량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효모균인 카자흐 스카니아 세르바찌워 데바 리오 미시즈 한세니, 유산균인 엔테로코커스 피시 움은 가축 소화기 질병 예방과 사료 소화효소 생산 촉진, 축사 악취 제거 등에 효과가 뛰어나 축산 농가에도 활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런 연구 성과를 이뤄낸 배경에는 2017년 문을 연 순창 친환경농업연구센터의 역할이 컸다.

센터는 지난해 6월 박사급 연구 인력을 신규로 채용해 전문성을 더하면서 농작물에 유용한 미생물 발굴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신규 분리한 유용미생물의 기능성 효소인 키틴 분해 효소, 셀룰로스 분해 효소 등의 활성, 작물 병해충 방제 활성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추 작물을 대상으로 유용 미생물의 고추 생육 증진 활성 연구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어 친환경 농업 분야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전망이다.

/순창=장양근 기자 jyg@

군산시, '청년수당' 7월부터 시범 지급

군산시는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돕기 위한 '청년수당'을 오는 7월부터 시범 지급한다.

고교, 대학, 대학원을 졸업한 지 2년이 넘은 만 18~34세의 군산지역 미취업 청년으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553만 6000원 이하여야 한다.

군산시는 소득과 구직 의지 등을 평가해 50명을 선발하며 최장 6개월 동안 월 50만원씩을 준다.

선정되면 매월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하고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에도 참여해야 한다.

신청은 3일부터 14일까지 군산시 일자리창출과 청년정책계(063-454-4383)로 하면 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청년수당은 어려운 가정환경의 미취업 청년들이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며 "청년의 요구를 반영해 앞으로 지원 대상을 점차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고창군, '고창사랑상품권' 23억원 어치 발행

고창군이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창사랑상품권을 오는 7월 발행할 계획이다.

고창군에 따르면 상품권은 고창 관내에서만 유통 사용할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 올해 23억원을 발행하고, 수요 상황에 따라 추가로 발행할 예정이다.

군은 이를 위해 고창사랑상품권 가맹점 모집 캠페인과 함께 지역 내 점포를 방문해 고창사랑상품권 홍보와 현장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930여개의 가맹점을 모집했다.

가맹점 지정을 원하는 업소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지참해 고창군청 상생경제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 및 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고창군은 최근 한국조폐공사와 '고창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금융기관 15곳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덕남동, 임야

- 장/단기 최고 투자 물건임
- 덕남동, 992㎡(300p), 지분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투자적합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4500만원(3.3㎡당 15만원)

문의. 010-6834-7400